현불 논단

불교적인 군주란…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고의 호법군주 아쇼카
불교외호 '담마라자' 남겨
공평 · 공정 가치로 전법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 발언
차별과 사회 갈등 단초 제공
모범으로 국민 이끌 책임있어
2년 뒤 불교군주가 탄생하길

우리는 인도 마우리야 왕조의 3번 째 왕이었던 아쇼카(Ashoka)를 최고의 재가불자라고 이야기한다. 아쇼카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인도 동부 갠지스강 중하류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스리랑카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담마라자(dhammarāja)란 개념을 통해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불교적인 군주관을 정착시켰다. 아쇼카 이후 수많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군주들이 스스로를 담마라자로 자리매김하고 불교 교단에 보시하는 등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사실 아쇼카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인도 전역에 남아있는 아쇼카 비문에 의하면 그는 불교의 불살생과 자이나교의 비폭력 그리고 동인도의 관습을 결합하여 그 자신의 도덕률인 다르마(dharma)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윤리관인 다르마를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아쇼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 국민이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했다. 아쇼카 비문은 자신의 도덕률을 인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이었고 아쇼카의 진솔한 마음이 글에 담겨 있다.

아쇼카는 먼저 모든 국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나의 자녀와 같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루듯이, 모든 국민을 사랑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20세기가 되어서 가능했던 인권선언이 기원전 250년 경에 나왔다. 아쇼카는 이와 함께 노인을 공경하고, 모든 종교에 관용적이며, 생태적 입장에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을 도우라고 국민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비폭력 선언을 했고 불살생으로 시작되는 불교의 5계를 지킬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의 노력은 국내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로 확대되었다. 그는 이웃 나라로 신하들과 불교의 스님들을 파견하여 자신의 다르마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교가 성공적으로 스리랑카에 정착되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선거에서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선거에 져서 물러나게 되었다. 불교적 척도로 보았을 때 그는 어떤 대통령이었을까?

그는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여 세계질서를 흔들었고,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아서 흑인과 히스패닉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부추겨서 이슬람교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조했으며, 총기규제를 완화하고 총기 소유를 권장하여 총기에 의한 폭력을 불러일으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다른 대책 없이 폐지해서 국민을 어렵게 했으며,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자신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가적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쇼카와 같이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지난 4년간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각각에 있어서 불교적인 군주와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온 것 같다.

그의 퇴진은 이때까지 그가 행한 이러한 행위들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2년 후 있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불교적 군주관을 척도로 어림짐작해 본다.

社 說

'사회공헌' 상월결사 또 다른 행보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그리고 결사마다 회향은 나눔의 행보였다.

돌아보면 위례 상월선원 무문관 정진을 원만히 회향한 회주 자승 스님 등 정진 대중들의 첫 행보는 헌혈이었다. 스님들은 결사를 마친 지 하루만인 2월 8일 서울 봉은사로 온 헌혈차에서 헌혈에 동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로 최근 헌혈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들이 세상에 회향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이었다. 2월 25일에는 코로나로 취소된 회향식 비용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1월 11일. 상월결사 대중들은 자비순례 회향 또한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진행했다. 병원 구급차 구입,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 탄자니아 농업학교 운영 등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결사는 매우 중한 단어다. 목숨을 건 정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그 끝은 무엇일까. 바로 대중과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상월결사는 수차례 순례를 통해 한국불교에 새로운 전형을 세웠다. 그 마지막 회향도 소외계층과 함께한다는 전범을 만들었다.

이제 상월결사는 삼보사찰 순례와 인도 만행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는 일도 이어질 것이다. 상월결사는 수행자 본분에 맞는 용맹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천막결사 회향에서 보여준 큰 울림은 자비순례 회향에서 보여준 사회 공헌 등으로 우리 곁에 또 다른 울림을 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30주년에 부쳐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저변 확대를 꾀한다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不二' 사상을 새로운 화두로 삼아, 인류를 넘어 지구공동체를 위한 비핵화와 환경운동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불교인권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그 행보가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창립했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저조한 시기,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발걸음을 맞추며 '불교 인권'의 새로운 정의를 깃발삼아 두각을 드러냈다. 사형제 폐지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집지어주기 운동, 노동과 평화통일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 소외된 이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그렇게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인권위원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정부족으로 매순간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했고, 활동도 서서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 인권위원회 출범 추진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고, 한국종단협의회 산하 기구로 재정비되면서 조직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운영상황은 열악하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불교계 시선 속에 다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유다.

그럼에도 기대는 여전하다. 과거 불교단체의 한축을 담당하며 불교계 인권 운동의 기치를 세웠던 만큼,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리라는 믿음 덕분이다. '不二' 사상이 진정한 인권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불교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스님 업이 뭡니까?

얼마 전 어느 기자분이 "병원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어왔다. 순간 '아,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한 생각이 들며 소록도 작은 섬이 떠올라왔다.

강원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처럼 세상 밖으로 막 첫걸음을 내딛던 시절이었다. 선방의 방부를 들이지 못하고 잠시 고민하다 만행을 계획하였다. 일 년만 봉사만행을 해보자 하고 찾은 곳이 '소록도'였다.

'걷다가 손가락 한 마디 땅 위에 떨어지다.'

한하운 시인의 싯구절을 읊조리며 봉사를 낭만으로 생각하던 철없던 시절이었다.

병동을 지정받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서툰 나의 행동을 주시하는 시선이 있었다. 김 아저씨였다. 아주 조그마한 몸에 맑은 눈빛과 천사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 아저씨는 원래 '출가자'였다고 했다. 출가한 지 일 년 만에 자신이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소록도를 찾았다고 한다.

김 아저씨는 나를 만난 후 활력이 생긴 것 같았다. 새벽에는 라디오를 틀어 불교방송의 예불문을 들으며 예불을 하시고,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도 하셨다.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모아 합장을 하시는 모습에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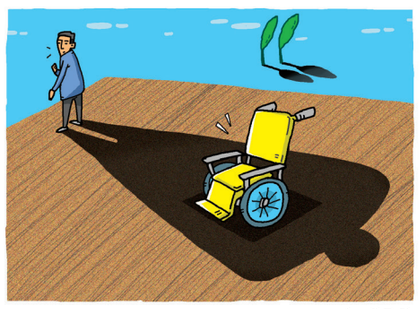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루는 점심 식사를 끝낸 김 아저씨가 무척 들뜨고 분주한 표정으로 나에게 휠체어를 태워달라고 하였다. 아저씨의 특별한 언어들을 알아듣기 어려운 나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휠체어를 이동해 보기로 했다. "어"하는 소리가 부드러우면 맞는 것이고 톤이 높고 격하면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결국 그런 의사소통으로 어렵사리 도착한 곳은 외래병동의 커피자판기 앞이었다. 나에게 커피 한잔을 사주고 싶은 것이 아저씨의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알고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다.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 주변을 산책하다 잠시 멈추어 휠체어를 마주하고 긴 의자에 앉았다. 김 아저씨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했다. 귀를 쫑긋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업이 뭡니까?" 어눌하지만 선명하게 들리던 그 질문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화두의 답을 일러보라고 말하는 스승의 다그침에 말문이 막히는 제자처럼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 목에 큰 가시가 걸린 듯한 불편한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병동에서 환자 식사 준비를 할 때, 환자식으로 나온 곰국에 발을 데어 며칠 치료를 받고 2차 감염 등의 위험을 운운하는 걱정에 묻어 나는 결국 소록도를 나오게 되었다.

"업이 뭡니까?"라는 말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통의 당체가 살아움직이는 병원이라는 수행처를 선방삼아 공부하게 된 그 이유를 이제야 나 스스로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